



전주기전대, 라오스서 '동계 해외현장활동' 실시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10월 26일~11월 2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라오스 투앙프리방·비엔타인·방비엔 지역에서 '동계 해외현장활동'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하는 '2025년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해외 현장활동은 학생들이 전공 역량을 살려 교육·농업·보건 분야의 ODA(공적개발원조)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수행하게 된다.

라오스 지역사회 이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전주기전대학이 후원하는 씨 양무와 유치원을 방문해 이동 교육 프로그램과 현지 지원 활동을 병행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봉사를 실천하는 인재 △특화된 전공 기술을 지닌 전문인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있는 직업 인을 양성하는 전주기전대학의 인재상과 맞닿아 있다. 단순 지원이 아닌 참여형 협력 활동을 중심으로 현지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장은성 기자



군산부설초, 신시도 자연휴양림 인근 해양 생태체험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서선영)는 지난 14일, 21일, 28일 3일에 걸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시도 자연휴양림 인근에서 해양 생태체험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 생태체험은 해양 쓰레기 수거, 리사이클링 프로그램, 환경보호 탐구활동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해양쓰레기'가 고래와 같은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영상과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은 "재활용품을 활용한 키링 만들기 활동이 너무 재미있었고, 바다를 더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선영 교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교실을 벗어나 자연 속의 살아있는 배움 현장을 몸소 경험했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생태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민원과, 지적 민원 현장 해결… 시민 호응



'달려가는 지적 해결사'는 지난해부터 원거리 지역을 시작으로 시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과 지적측량신청을 현장 상담부터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현장 순회형 서비스다.

올해는 주민들의 큰 호응으로 12개 읍·면으로 확대 추진해 왔으며, 특히 고령자와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로부터 '굳이 시청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현장에서 바로 답을 듣고 정리할 수 있어 안심된다" 등 만족도가 높아졌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 고민을 해결해 주는 소통행정 실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유운용내과, 아름다운 나눔 활동 10년째 이어져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7일 유운용내과(원장 유운용)가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10년째 연말마다 꾸준한 기부를 통해 나눔문화를 실천해오고 있는 유운용 원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유 원장은 "겨울이 오면 더 외롭고 힘들어하시는 소외계층을 위해 작지만, 정성을 모았다"며 "작은 도움의 손길이지만 우리 동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사람들

# 50년 신협 사랑, 지역에 나눔으로 피우다

이리신협 이단심 조합원, '제10회 금융의 날' 국무총리표창 수상

"저축은 제 삶의 일부입니다, 나눔의 씨앗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신협과 함께 한 여성의 진심 어린 금융 실천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에서 열린 '제10회 금융의 날' 행사에서 이리신협 소속 이단심 조합원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조합원은 반세기 동안 꾸준히 저축을 실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나눔과 봉사를 이어온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단심 조합원은 1974년 이리신협과 첫 거래를 시작한 이후 50년 넘게 저축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왔다. 출자금을 포함한 예금상품만 총 183건에 이르며, 단순한 금융 거래를 넘어 그녀의 저축은 사회복지단체 후원과 봉사활동으로 이어졌다. "돈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저축이지요." 그녀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를 지속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켜왔다.

1995년에는 이리신협과 함께 익산시 최초의 주부문화 교실을 설립했다. 빌기인이자 회장으로서 30년간 '주부 노래교실'을 운영하며 40~50대 주부들에게 문화 활동의 장을 제공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이 교실은 어느덧 2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프로그램으로 성장해 주부들의 사회참여와 자존감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활동은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소년과 교도소의 재소자 교화, 장애아동 복지시설과 정신질환자 보호시설 등으로 이어지는 재능기부 봉사로 확장됐다. 그녀의 노래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이단심 조합원의 나눔은 노래교실에 그치지 않았다. 20여 년 동안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연탄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며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탈북민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넸다.



영·호남 친선골프대회, 남원서 개최

정보통신인들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제23회 영·호남 친선골프대회'가 지난 27일 전북 남원시 골프준마운티드래곤CC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 전통회(회장 오광호)가 주최하고, 부산·울산·경남도회 정록회, 대구·경북도회 정통회, 광주·전남도회 통우회가 함께 참여하여 영·호남 지역 정보통신인 간의 교류와 단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행사로 열렸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영·호남 친선골프대회는 2001년 광주·전남 통우회 주관으로 첫 대회가 열린 이후, 영남과 호남 4개 지역이 매년 번갈아가며 개최해 온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대표적인 친선 교류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종합회장, 강정훈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영·호남지역 시·도회장,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장은성 기자

## 무형유산 제12호 악기장 서인석 명인, 무형유산 공개행사 성료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2호 악기장 서인석 명인이 최근, 점을 연지아트홀에서 100년 가업의 진수를 선보였다. '무형유산 공개행사'로 열린 이날 시연회에서 서 명인은 장구·북 등 전통 국악기의 제작 기법·음향 특성을 공개하며 "악기는 마음의 운기로 완성된다"는 철학을 전했다.

서인석 명인은 전통 장구·북을 통나무 한 그루에서 통째로 깎아내는 고유 기법으로 명성을 얻은 장인이었다. 그는 조부 서영관, 부친 서남규에 이어 3대째 정읍에서 국악기 제작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개행사에서는 제작 과정뿐 아니라 장구 연주 시연도 함께 진행돼, 호남 우도 풍물의 맥을 전승하는 명인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 명인의 활동은 세계 무대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세계적인 사운드 아티스트 티arek Atoui와 함께 밀라노에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밀라노 협업에서는 한국 전통 타악기의 재료·형태·율률을 현대적 전자 사운드와 결합해 새로운 악기·페포먼스를 선보였으며, 현지 미술계·음악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정은=김대환 기자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 다문화아동 성장보고회

전북대학 산학협력단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이 다문화 이동지원사업 '우리마을 문화다리(문화를 익힐)의 일환으로 최근 이동 성장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8일 전북대에 따르면 보고회에는 군산 오식도, 남원 노암, 익산 제일, 장수 대성, 정읍 하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참여 이동 등 5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년간의 프로그램 활동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보고회는 난민 가족 등 사회적으로 밖에난 아동들이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당당히 표현하고 자주감을 높이는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들은 직접 무대에 올라 활동 소감과 성취를 발표했으며, 각 센터의 우수 사례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자신감과 리더십을 키웠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간 교류를 강화하고 향후 프로그램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등 지역사회 이동 돌봄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한편, 전북대 산학협력단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은 도내 287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마음건강 지키는 방법 시작화… 학생 마음건강 콘텐츠 공모 '대상'

### 전주용소초 주지연, 인포그래픽 부분 최고상

전주용소초등학교(교장 최현순) '마음풀이 꽂는다' 마음챙김 동아리 소속 주지연(6년) 학생이 2025년 학생 마음건강 콘텐츠 공모전' 인포그래픽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을 수상한 주지연 학생의 작품 '마음근육을 키우는 마음챙김'은 마음 건강을 지키는 핵심 방법인 '마음챙김'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턱월하게 시작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팬데믹 전후 6~17세 청소년 우울증 치료 현황을 비교 그래프로 제시해 마음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마음챙김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는 개념 그래프를 통해 그 효과성을 입증했다.

특히 '먹으면서 하는 마음챙김', '움직이면서 하는 마음챙김' 등 초등학생들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까지 담아내 내용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강수연 전문상담교사의 지도 아래 운영되는 '마음풀이 꽂는다' 마음챙김 동아리'의 꾸준하고 내실 있는 활동이 맛있는 결실이라 더욱 뜻깊다.

'마음풀이 꽂는다' 동아리는 사회정서역량 진단 검사를 시작으로 95시간에 걸친 체계적인 사회정서교육, 정신건강 리터러시 캠페인, 전문가 초청 쟁임벌 명상, 감정조절용 애착인형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지연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고, 마음챙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자처럼 다른 친구들도 자신의 마음 균형을 튼튼하게 키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용소초 '마음풀이 꽂는다' 동아리는 오는 31일까지 '생명시장 스탬프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9일 등록(일간)

(주) 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8645-4113

신천지사

010-233-4791

서신지사

272-9417

호지사

010-8645-9935

중왕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55

송천지사 256-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6789-0038

의산지사 868-99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56

순천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성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8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23